지역 메아리

김제시, 직원 역량강화교육 실시

김제시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금구면 삼성생명연수소에서 김제시 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기수가 동시에 진행되는 교육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 사고력 향상"과 "감성을 통한 소통능력 향상"이라는 주제로 각40명의 공무원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직원역량강화교육은 그동안 관외에서 시행되어왔던 교육이었으나 이번교육은 박준배 김제시장이 평소 강조해온 관내에서의 투자승수효과를 구현하기 위해 김제시 관내에서 실시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찾아가는 의료급여 제도 안내 교육 실시

김제시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2019년 상반기에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150명을 대상으로 1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의료급여제도 안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의료급여일수 산정방법,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올바른 의료급여기관 이용방법 등 의료급여제도 전반적인 내용과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김제시에서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3명이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자가 의료이용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사전 예방하고 무분별한 의료이용으로 낭비되는 의료급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 의료급여제도 안내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공무원 노동조합 "KTX 김제역 정차" 릴레이 캠페인

김제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지석) 조합원 30명은 25일 시청앞 로터리에서 김제시 현안사업이자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은 KTX 김제역 정차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김제시 KTX정차 운동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철도의 공공성 강화등을 위해 꼭 필요하며 김제시민뿐만 아니라 주변 전주혁신도시와 미래새만금 지역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의 중요한 현안과제로 지역단체 및 시민들의 KTX 김제역 정차 호소에 힘을 모으는 효과를 거두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은 25일 6.25참전유공자회 주관으로 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제69주년 6.25 전쟁 기념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보훈가족 합당한 예우 받게"

완주군, 제69주년 6·25 전쟁 기념행사 진행

완주군이 69주년 6.25전쟁 기념행사를 열고 참전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로했다.

25일 완주군은 6.25참전유공자회 주관으로 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제69주년 6.25 전쟁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일 군수, 최등원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6.25참전용사, 유가족, 각급 기관단체장, 군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1부 행사로 6.25전쟁의 희생과 교훈을 전후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식전 안보동영상 상영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됐다. 2부는 기념식으로 순국선열의 뜻을 기렸다.

앞서 군은 지난 24일 국가보훈처와 함께 월남참전유공자인 삼례읍의 한상수씨와 해군 소속으로 특수임무 중 상이를 입은 이의산씨 집을 찾아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주고 존경과 예우를 표하기도 했다.

박성일 군수는 "기나긴 대립국면에서 벗어나 화해와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들이 존경받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만경읍 농번기 화포리 화포마을과 토정마을을 선정하여 농촌 공동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행복 한 숟갈, 웃음 한 보따리'

김제시 만경읍,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인기

김제시 만경읍 농번기 농촌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화포리 화포마을과 토정마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1개소당 급식 도우미 인건비 1일 4만원과 부식비 4만원씩 연 40일간 총 320만원씩 도비 30%, 시비 70% 보조사업으로 농번기 공동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김제시 만경읍에서는 읍내 식당과 거리가 멀고 이모작 농업인이 많은 화포리 2개 마을(화포마을, 토정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주민들로부터 입소문을 타고 벌써부터 내년도 사업 신청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도비 매칭사업을 확대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만경읍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은 지난달 중순부터 동계 발작물 수확, 벼 못자리 상토작업과 모내기, 이모작 보리수확 및 이모작 논 모내기 등 쉴 틈 없는 농번기에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일손부족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바쁜 농번기철에 소홀해지기 쉬운 영양공급까지 챙기고 있어 일석다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화포마을을 정 모씨는 "한상에 둘러앉아 서로간의 살아가는 이야기들로 웃음꽃을 피우며 점심을 먹다보니 피로도 풀리고 이웃사촌을 뛰어넘어 가족과 같은 기분이다"며, 1일 평균 20여명이 부식비 4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공동급식에 참여하는 이들이 십시일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병인 만경읍장은 "농촌이 고령화·여성화로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우리 전통의 울력과도 통하는 농촌 공동체사업의 취지를 마을 주민들이 잘 우려내고 있어 행복한 마음이 든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전국 '선진행정 1번지' 자리매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총 80여회 수상

민선 7기 1년을 맞은 완주군이 지난해 이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 총 80여 회의 주요 수상을 휩쓸며 전국 선진행정 1번지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25일 완주군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외부기관 평가 및 수상을 취합한 결과 주요 부문에서 총 80여회의 수상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상 분야도 복지와 먹거리 등 다양한 가운데 행정의 주요 부문인 일자리와 규제혁신, 안전 등 3개 분야에서는 대통령 표창과 전국 10년 연속 수상 등 진기록을 세우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해 관심을 끌었다.

우선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전국에서 가장 규제개혁을 잘 하는 지자체로 입증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난 2017년도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전국기업 환경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관련조례 규제평가)' 전국 1위, 2018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증기관'에 이어 3년 연속 전국 최고를 인정받았다.

일자리와 관련된 성과는 또 있다. 10년 연속 행정안전부 일자리정책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운 것.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제1회 전국 일자리종합대책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평가한 이래 단 한 번도 수상을 놓치지 않았다.

정부혁신 평가에서도 2년 연속 군 단위 전국 1위를 차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는 국정 운영방식을 접목, 주민소통과 민관 거버넌스에 기반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다양한 시책 추진을 인정받았다. 완주군의 로컬푸드는 전국을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았다.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UFPP) 먹거리정책 우수도시 시상에서 아시아 최초로 거버넌스 부문 특별상을 거머쥐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안전 분야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재난관리 평가 행안부 장관 표창,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행안부 최우수상, 재해위험지역 정비 우수사례 선정 등으로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전북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선정됐다. 전국 군단위 중 8위, 전북 1위의 수치다.

이외에도 아동정책 평가 전국 1위, 지역복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장관상, 주민참여예산제 군 단위 유일 2년 연속 행안부 수상,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전국 2위,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대통령상 등의 수상 성과를 거뒀다.

/완주=이종복 기자

금구면주민자치위,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 추진

김제시 금구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승일)가 올 해 금구면 초입과 주요 소재지 일대에 명품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한다.

금구면 코스모스 꽃길 조성구간은 총7.6km로, 김제IC와 진흥사거리간 4km와 면소재지인 신기마을에서 라정에너지 가스충전소, 선락마을에서 금산면 경계에 이르는 3.6km 노선이다.

이 사업은 9월 27일 부터 개최되는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 기간중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김제시 코스모스 100리길 조성사업과 연계한 것으로, 금구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관광객들에게 옛 시골의 정취와 향수를 불러 일으키고 잔잔한 마음의 휴식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승일 위원장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사는 금구면을 더욱 밝고 아름답게 가꾸고 단장하여 다시 가고 싶은 명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재영 금구면장은 "김제지평선축제가 세계 무대로 성장해 가는 분위기에 부응하여 금구면의 명품 코스모스 꽃길이 일익을 담당하도록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